

폐기물로 만든 업사이클링 가구

공예가 된 공해

나무에 잎이 들고 다시 떨어지는 자연의 순환에서, 해변을 더럽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남은 플라스틱 부스러기에서 무궁무진한 디자인 기회를 발견하는 젊은 디자이너들. 바다를 떠돌던 플라스틱 조각이 밤하늘 별처럼 빛나고, 공해 물질은 공예 작품이 되었다. 글 정규영 기자



슬로바키아 디자이너 시몬 케른이 낙엽과 송진을 혼합해 압축한 재료로 만든 빌리프 체어. '믿음(belief)'과 '잎이 되다(be leaf)'의 발음이 같은 점을 활용한 언어유희다. 프레임은 그대로 둔 채 낙엽으로 만든 의자 상판을 교체하며 사용한다.

부서져도 좋아

빌리프 체어Beleaf Chair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도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우리 주변은 여전히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 슬로바키아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시몬 케른Simon Kern은 나무를 떠올렸다. 수백 년 동안 자란 줄기와 가지에 돋은 푸른 잎이 계절이 바뀌면 떨어져 양분이 되기를 반복하는 나무. 자연의 순환을 가구 제작과 폐기 과정에 적용한 의자가 '빌리프 체어'다. 낙엽을 송진으로 굳히고 압축한 소재로 만든 의



자 상판은 잎 역할이다. 쇠파이프를 구부려 만든 의자 프레임은 나무줄기와 가지처럼 오랜 세월을 거뜬히 버틸 것이다. 몇 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여기저기 흠집 난 상판을 해체해 나무 주위에 뿌리면 자연 상태의 낙엽이 그렇듯 모양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튼튼한 뼈대 위에 놓을 상판은 낙엽을 주워 또다시 만들면 된다. '부서져도 좋다'는 역발상을 통해 어디에나 있는 낙엽으로 흥미로운 의자를 완성했다.

사진 제공 시몬 케른(simonkern.sk)



영국 디자이너 샬럿 키저의 인더스트리얼 크래프트 컬렉션. CNC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스러기를 레진으로 굳혀 경쾌한 색을 입혔다. 현무암을 연상시키는 표면 질감이 인상적이다.

매끈함의 대가

인더스트리얼 크래프트Industrial Craft

컴퓨터에 수치를 입력해 형태를 만드는 CNC 공작기계는 보다 정밀한 디자인을 가능케 했다. 이음매와 유격이 전혀 없는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CNC 가공으로 만들어낸 대표적 제품. 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플라스틱 부스러기가 발생한다는 사실. 태워도, 땅에 묻어도 막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샬럿 키저Charlotte Kidger는 처리하기 곤란한 이 산업

폐기물에서 새로운 디자인 기회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부스러기와 레진을 7:3 비율로 섞어 굳혀 튼튼하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것. 재료에 경쾌한 색을 입혀 화분과 테이블, 스툴 등을 제작하고 '인더스트리얼 크래프트(산업적 공예)'라 이름 붙였다. 공해 물질로 완성한 공예품. 현무암을 연상시키는 거친 질감이 CNC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의 매끈한 표면과 재미난 대조를 이룬다. 사진 제공 샬럿 키저(charlottekidger.com)





호주 출신 영국 디자이너 브로디 닐의 플랏섬 벤치. 대리석이나 화강암 대신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오션 테라초로 상판을 완성했다. 디자인 구루 로사나 올란디의 브랜드 로와 함께 제작했다.

표류하는 보석

플랏섬 벤치 Flotsam Bench

오션 테라초 Ocean Terrazzo는 영국 디자이너 브로디 닐 Brodie Neill이 개발한 합성 소재의 이름이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호주 태즈메이니아섬의 해변은 현재 먼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엉망인 상태. 브로디 닐은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NGO, 화학자, 엔지니어 등과 함께 대리석과 화강암 대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가공한 새로운 테라초 소재를 만들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표면 질감이 인상적인 오션 테라초로 만든 '플랏섬



벤치'는 표류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트·디자인 컬렉터이자 갤러리스트인 로사나 올란디 Rossana Orlandi의 브랜드 로 Ro와 협업한 작품. 검은 바탕에 색색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밤하늘 별처럼 빛난다. 먼바다에 표류하는 플라스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2019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모래 대신 플라스틱 알갱이를 넣어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모래시계 '캡슐 Capsule'과 함께 전시했다. 사진 제공 브로디 닐(brodieneill.com)



멕시코 디자이너 사비에르 로란드의 네로 스톨과 사이드 테이블. 커피 찌꺼기와 나무껍질, 송진을 섞어 완성한 신소재로 상판을 만들었다. 코르크와 MDF 합판 사이의 강도와 질감을 지닌 소재는 은은한 커피 향이 풍긴다.

커피에 앉아 커피 한잔

네로 Nero 스톨과 사이드 테이블

사비에르 로란드 Xavier Loránd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신진 가구 디자이너다. 나뭇조각을 송진으로 굳혀 만든 이국적이면서도 진중한 질감의 가구를 선보여온 그가 이번엔 커피 찌꺼기로 스톨과 사이드 테이블을 완성했다.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모은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킨 후 나무껍질과 송진을 섞어 완성한 신소재는 코르크와 MDF 합판 사이의 강도와 질감을 지닌다. 커피의 색과 향을 간직한 소재로 만든 상판을 마치 초콜릿 쿠키처럼 검은색 돌 조각이



알알이 박힌 콘크리트 테라초로 지탱한다. 커피 향을 내기 위해 콘크리트 테라초 제작 과정에도 커피 찌꺼기가 들어간다. 커피를 즐기는 디자이너는 푸른색 세라믹 커피 저그와 잔도 세트도 만들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을 고민하던 사비에르 로란드의 개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네로' 컬렉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커피와 함께하려는 디자이너의 소망이 가구가 되었다. 사진 제공 사비에르 로란드(xavierlorand.com)